

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!

하나의 힘은 미약하지만 3만 2천 조합원의 힘은 KT를 바꿀 수 있습니다.
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일상이 지속돼서는 안됩니다.
경영이 단지 경영진의 몫이라고 수수방관해서도 안됩니다.
우리가 만든 사외이사면 KT를 바꿀 수 있습니다.
노동조합이 경영에 참가하면 다른 세상을 맞볼 수 있습니다.

조합원여러분의 위임장(주주제안, 집중투표)이 우리의 고용을 지킵니다.